

최형우 “홈런, 300번째는 다르네요”



방출→경찰청→삼성 재입단→KIA 우여곡절
데뷔 11년만에 13번째 300홈런…“스스로 대전해”
꾸준함의 대명사 후배들에 귀감…“열정은 처음과 같아”

2008년 4월 1일은 KIA 타이거즈 '4번 타자' 최형우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다.

당시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었던 최형우는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그라운드를 돌았다.

2-2로 맞선 10회초 1사 1루에서 7번 타자로 나선 최형우는 정재복의 직구를 잡아당겨 극적인 역전 홈런을 만들어냈다. 프로에 첫발을 내디딘 뒤 7년 만에 맞은 데뷔 홈런이었다. 이날 경기가 6-2 삼성의 승리로 끝나면서 최형우는 데뷔 홈런과 함께 결승타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전주고를 졸업하고 2002년 프로 선수가 된 최형우는 2004년까지 단 6경기에 나오는데 그쳤다. 그리고 2005시즌이 끝난 뒤 방출의 아픔을 겪었다.

경찰청에 입단해 절치부심했던 최형우는 2008년 삼성에 재입단해 두 번째 야구 인생을 시작했다. 같은 해 4월 1일 최형우는 결정적인 순간 담장을 넘기면서 잊을 수 없는 1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2019년 8월 4일 챔피언스필드. KIA의 4번 타자로 타석에 선 최형우가 4회 2사에서 NC 프리드리크의 직구를 받아 우측 담장을 넘겼다. 이 홈런으로 최형우는 KBO리그 통산 13번째 300홈런 주인공이 됐다.

0-0의 균형을 깨는 선제 홈런을 날린 최형우는 양현종의 1-0 완봉승으로 경기가 끝나면서 결승타를 기록했다.

'99구 119분 완봉승'을 기록한 양현종은 "형우형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최형우는 "현종이가 1점의 승리를 지켜줘서 내 홈런이 빛날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꾸준함'의 대명사인 최형우는 매년 기록행진을 펼치고 있지만 소감은 늘 비슷했다. "하다 보니까 이론 기록"이라고 무덤덤하게 말했다.

하지만 300번째 홈런 뒤 최형우의 소감은 여느 때와는 조금 달랐다.

최형우는 "나 자신에게 항상 잘했다고 대견하다

고 하고 있다"며 "처음 (야구) 시작했을 때 좋지 않았기 때문에 1000타점도 그렇고 10년 넘게 기록을 생각 안하고 살았다. 매일 내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야구를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욕심도 났다. 300홈런이 다가오니까 욕심이 나서 오래 홈런이 안 나왔던 것 같다. 지금 너무 기분이 좋다"고 감격스러워했다.

방출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최형우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야구를 해왔다.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금도 간절함과 열정은 똑같다. 웬만한 부상이 아니면 좀처럼 자리를 비우지도 않는다. "천하의 최형우도 저렇게 하는데..."하면서 후배들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 중의 프로다.

300홈런의 시작점을 돌아보면 최형우는 웃음이 난다.

그는 "당시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놈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최형우 이름 석 자를 기억하라고 그랬다. 가끔 그 영상을 찾아본다(웃음)"며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홈런 치고 뛰면서 어리바리 신나서 날뛰었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최형우'를 기억하라고 외쳤던 '당돌한 예비역'이 KBO리그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톡톡

민을맨 박준표 “애들한테 배워요”

▲칭찬을 해주셔서 = 한승택은 6일 LG와의 경기에서 앞서 '반기운 스승'을 만났다. 김재현 스포터비해설 위원에 그 주인공. 두 사람은 2017년 11월 열린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서 대표팀 타격 코치와 선수로 인연을 맺었다. 깍뚝하게 인사를 올렸던 한승택은 "당시 대표팀에서 훈련을 할 때 타격에 재능이 있다고 해주셨다. 그래서 더 감사하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그때 "배트 스피드를 높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다"며 "어렸을 때 야구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웠다. 지금도 몸이 좋으시다. 선수 때보다 더 좋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좌투수에게도 감사합니다 = 6일 훈련 시간에 유민상의 어릴 시간이 있었다. 유민상은 후반기 4경

기에서 9타수 6안타(타율 0.666) 2타점 4볼넷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월 30일 SK전에서는 결승타 주인공도 됐지만 1일 대타로 나온 이후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다.

이날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유민상은 "저 좌투수에 감합니다. 타율이 더 좋습니다"고 웃으며 좌투수 강세를 강조했다. KIA는 8월 들어 김광현(SK)-구창모(NC)-프리드리크(NC)에 이어 차우찬(LG)까지 4명의 좌투수와 잇달아 격돌했다. 덕분에 좌타자 유민상의 출전 기회가 줄었다. 유민상은 올 시즌 좌투수에 타율 0.500, 우투수와의 승부에서는 타율 0.387을 기록하고 있다.

▲애들이 저보다 잘해요 = 후배들에게 배우고 있

는 박준표다. 사이드암 박준표는 제대 후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다. 3일 NC전까지 28경기에서 나와 1.42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6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필승조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불펜에서 경험도 풍부한 만큼 박준표에게 거는 기대감이 높다.

박준표는 "지난해 경찰청에서 선발을 하다 왔지만 워낙 불펜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불펜 역할이 어색하지 않다. 후배들에게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 나도 애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다"며 "애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투수들이 서로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메이저 퀸’ 고국 나들이

고진영 9일부터 KLPGA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출전

세계랭킹 1위이자 올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퀸에 오른 고진영이 올해 첫 고국 나들이에 나선다.

고진영은 9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오라 컨트리 클럽 동서 코스(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8억원)에 출전한다.

고진영이 KLPGA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루키 시즌을 보내면서도 고진영은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 출전했다. 두 대회는 모두 고진영의 후원사다.

작년 이맘 때 고진영은 'LPGA투어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은 유망주'였다.

일찌감치 1승을 올려 신인왕을 군했지만 2017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인상이 더 짙었다.

올해는 세계랭킹 1위에 LPGA투어 상금, 올해의 선수, 평균타수 등 전 부문 1위를 석권한 '세계골프 여왕'의 신분이다.

더구나 ANA 인스퍼레이션과 예비양 챔피언 우승에 여자브리티시오픈 3위 등 메이저대회에서 가장 탁월한 성적을 낸 선수에게 주는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까지 받았다.

2014년부터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출전했고 2년 전 우승을 포함해 세번이나 톱10에 올라 코스도 원하다.

KLPGA투어에서 9차례 정상에 오른 고진영이 우승하면 2017년 9월 BMW 챔피언십 우승 이후 23개월 만에 통산 10승 고지에 오르게 된다.

삼다수 마스터스 단골 출전인 '여제' 박인비의 6번째 우승 도전도 관심사다. 박인비는 작년까지 5차례 이 대회에서 출전했지만 한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2명의 해외파를 맞는 국내파 강자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삼다수 마스터스는 KLPGA투어 하반기 첫 대회다. 상금왕, 대상, 평균타수 1위, 다승왕 등 각종 개인 타이틀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반기에 4승을 쓸어 담은 최혜진의 기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상금랭킹 2위이자 대상 포인트 1위 조정민과 난코스에서만 2승을 수확한 상금랭킹 3위 이다연, 장타여왕 김아람, 우승 없이도 상금 5위에 오른 작년 다승왕 이소영, 신인왕을 향해 질주하는 조아연 등 올해 KLPGA투어 '여왕'을 꿈꾸는 상위 랭커들이 빠짐없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미켈슨 제주 온다

10월 PGA CJ컵 출전

필 미켈슨(49·미국)이 4년 만에 다시 한국 팬들과 만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44승에 빛나는 미켈슨이 10월 17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PGA투어 더 CJ컵에 출전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6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켈슨은 국가대항전을 제외하면 외국 대회 출전을 선호하지 않기로 유명하다"며 "그런 미켈슨이 한국에서 열리는 PGA투어 대회에 나오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켈슨이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프레지던츠컵 이후 4년 만이다.

미국과 세계 연합 팀의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에서 미켈슨은 당시 3승 1무를 기록, 미국 대표팀 가운데 짝 존슨과 함께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미켈슨은 대회 조직위를 통해 "4년 전 한국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 CJ컵을 통해 다시 만나게 돼 기대된다"며 "더 CJ컵과 같이 세계적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큰 기쁨"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로써 올해 더 CJ컵에는 지난해 우승자이자 현재 세계 랭킹 1위 브룩스 켄가(미국)와 미켈슨이 출전을 확정했다.

올해 3번째인 더 CJ컵은 10월 17일부터 나흘간 제주 클럽나인브릿지에서 열린다.

더 CJ컵 바로 다음 주인 24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신설 대회 조조 챔피언십에는 타이거 우즈(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제이슨 데이(호주),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등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에서 PGA투어 대회가 2주 연속 열린면서 더 CJ컵과 조조 챔피언십의 '라인업 경쟁'에도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미켈슨은 일본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마스터즈 수영 40대의 열정

광주 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 대회 개막 이틀째인 6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아티스틱 경기장에서 열린 듀엣 테크니컬(40~49세)에서 네덜란드 팀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